Signifié 의 機能理論

—Prieto의 理論을 中心으로-

朴　　亨　　達
(서 울 大 學 校)

1) 言語學이 言語를 여러 事物에 붙여진 이름의 集合體 곧 物質的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事物을 가리키는 名稱의 集合體[1]로 보는 素朴한 그리고 그릇된 言語觀에서 脫皮하여 思想을 표현하는 다른 記號들——軍隊 信號, 벙어리가 사용하는 알파벳, 交通 信號, 등등과 같은——과 마찬가지로 思想과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 사이에 恣意性이 인정되는 恣意的인 記號의 體系이며, 그 中에서도 言語記號는 가장 순수한 恣意性이 認定되는 가장 複雜한 記號의 體系라는 見解를 갖게된 것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Ferdinand de Saussure 로 부터이다. 즉 今世紀初에 나타난 그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에 의하여, 言語學은 一般記號學의 한 分科로서 定義되었고[2], 따라서 言語記號는 思想과 音의 分節의 領域[3]이라고 定義됨으로써, 以上의 그릇된 言語觀에서 脫皮하여 참다운 言語觀에 도달한 것이다.

2) 여기서 論하고자 하는 Prieto 의 signifié 의 機能理論[4]이란, signifiant 과 함께 言語記號를 構成하는 要素로서의 signifié 를 機能的으로 把握하는 理論으로서, 결국 言語記號를 機能的으로 把握하는 理論에 歸屬된다. 그러면 言語記號의 어떤 單位를 基準으로 하는가가 問題가 된다. Prieto 는 그 單位를 énoncé[5]로 잡는다. énoncé 란, 他記號體系에도 存在하는 記號의 基本單位, 즉 Buyssens 이 말하는 記號素〈sème〉[6]에 對應되는 槪念으로서, 言語記號의 基本單位 곧 言語記號素를 뜻한다. 물론 言語記號素〈énoncé〉란 具體的事實이 아니라 具體的事實의 部類〈classe〉, 즉 實在體〈entité〉를 말한다. 言語記號素〈énoncé〉란 언어적 관점에서 볼 때 同一한 單純 parole 行爲〈l'acte de parole simple〉들의 하나의 部類〈classe〉이다. 單純 parole 行爲란 複合 parole 行爲〈l'acte de parole complexe〉와 對立되는 槪念

[1] cf. Ferdinand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1955 p. 34, 97. Robert Godel, *Les sources manuscrites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de F. de Saussure*, Genève 1957, p. 53.

[2] Saussure, op. cit., pp. 32—5.

[3] Ibid. p. 156.

[4] Luis J Prieto, *Principes de Noologie*, The Hague, 1964.

[5] cf. André Martinet, *Élément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1964, p. 19.

[6] cf. Henning Spang-Hannssen, *Recent Theories on the nature of the language sign* (*Travaux du cercle Linguistique de Copenhague. vol.* IX, Copenhague, 1954, pp. 114—6).

으로서, 두 개의 沈默에 의해서 分離되는 길건 짧건 간에 어떤 길이를 가진 parole의 조각 중에서 유일한 하나의 社會的 關係 곧 뜻〈sens〉[7]을 設定하는데 소용이 되는 最少의 parole의 조각〈tranche de parole indépandantes minmum〉을 말하며, 이것은 더 작은, 그리고 두개의 沈默 사이에 存在할 수 있는, 조각으로 分析이 可能한 조각 즉, 複合 parole 行爲와 區別되는 槪念이다. 예컨데, *J'ai acheté le livre. Vous voulez le voir?* 라는 parole 行爲의 조각은 하나 이상의 社會的 關係 즉 뜻을 設定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즉, 發話者를 E라 하고 聽取者를 R이라 하면, 《E가 특정한 책을 하나 샀다고 하는 R에 대한 報告》와, 《E가 산 책을 R이 보기를 願하는지에 대한 R에 대한 質問》. 그러므로 이 조각은 E와 R間에 하나의 그리고 유일한 社會的 關係가 設定되는, 그러면서도 두개의 沈默 사이에 存在하는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分析된 조각은 위의 條件을 滿足시켜주는 그 이상 더 작은 조각으로의 分析을 許容치 않는다. 그러므로 위에 예로 든 全體의 parole 行爲의 조각이 複合 parole 行爲이고 그것을 다시 分析해서 얻은 조각이 單純 parole 行爲인 것이다. 이 單純 parole 行爲는 반드시 온전한 文章임을 要하는 것은 아니다. parole 行爲의 실제 場面〈situation〉에 따라 그것은 한개의 낱말일 수도 있고 한개의 구〈句〉일 수도 있는 것이다. 單純 parole 行爲는, 具體的인 事實로서의 소리의 連續과 뜻〈sens〉으로 구성된다. 소리의 연속을 소리무리〈phonie〉라 한다면, 單純 parole 行爲는 소리무리와 뜻으로 構成된다. 소리무리는 말하는 사람의 發聲器管이라든가 기타의 言語外的인 條件에 따라 變異의 폭이 있을 수 있고, 뜻은 場面〈situation〉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이러한 具體的 事實로서의 소리무리와 뜻은 各各, 그 機能的 單位로서의 言語實在體〈l'entité linguistique〉[8]인 signifiant 과 signifié 로 分類될 수가 있다. 즉 signifiant 이란 소리무리의 部類〈classe〉이며, signifié 란 뜻의 部類이다. 즉 言語的 觀點, 곧 機能的 觀點에서 볼 때는 同一한 部類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言語的 觀點에서 볼 때 同一한 單純 parole 行爲들의 하나의 部類인 énoncé 는 言語의 基本實在體〈l'entité de base〉이며, 모든 記號에는 그와 類似한 實在體가 있는데, 이것을 Buyssens 과 같이 記號素〈sème〉[9]라고 通稱한다면, énoncé 는 言語的 記號素〈sème linguistique〉이다. Prieto가 문제로 삼는 言語記號란 바로 이 énoncé 즉 言語記號素, 간단히 말해서 記號素를 말한다. 그러므로 言語記號의 機能的 理論이란 엄밀히 말해서 記號素의 機能的 理論이 되는 것이다.

3) 그러면 機能이란 무엇인가. 文化人類學者 Malinowski는 文化人類學的 現象의 機能

---

[7] Prieto는 發話者와 聽取者間에 parole 行爲에서 맺어지는 社會的關係를 뜻〈sens〉이라 規定한다. cf. Prieto, op. cit p. 14

[8] 實在體〈entité〉란 具體的事實과 對立되는 槪念으로서, Saussure의 langue에 該當된다. 이에 대해서는 cf. Saussure, op. cit., pp. 144—9, Godel, op. cit., p. 260.

[9] 이것은 sémantème〈意味部〉와는 全혀 다른 槪念임은 물론이다. sème=sémantème로 解釋한데 대해서는 cf. J. Marouzeau, *Lexique de la terminologie linguistique*, Paris, 1951, p. 205.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10]

> 機能主義는, 萬一에 그것이 機能의 槪念을 "部分的活動이 그것이 部分을 이루고 있는바 全體의 活動에 대해서 하는 貢獻이다"라고 하는 따위의 하기 좋은 표현으로 定義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觀察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더 限定된 그리고 더 具體的인 언급을 통해서 定義하지 못하는 한, 그다지 機能的인 것이 못될 것이다. 〔…〕機能이란 〔…〕언제나 慾求 (생물학적, 또는 문화적)의 滿足이다. 가장 간단한 食事行爲로 부터 聖禮行爲에 이르기 까지〔…〕.[11]

Malinowski의 從來의 機能의 定義에 對한 反撥은, 言語學에 있어서의 機能의 定義에 대한 反省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Buyssens이 말한 바와 같이, 言語學은 言語의 內部的 機能을 다루는 것으로 滿足할 수는 없는 것이며, 言語의 傳達機能을 그 出發點으로 取함으로써만, 言語를 一般記號學에 配屬시킬 수 있고, 따라서 言語의 內部體系의 arrangement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12]. 즉 다시 말하면 言語의 機能이란 speaker가 남을 理解하고 그리고 자기자신을 남에게 理解시키는[13] 機能, 즉 傳達의 道具로서의 機能[14]이라 할 수 있다.

機能主義言語學에서 機能이 問題가 되는 理由는, 機能이, 同一集團意識이 知覺하는 社會的 事實[15]로서의 言語, 言衆의 意識이 느끼는 共時論的 實在體[16], 言衆이 無意識的으로 分析[16]하는 言語實在體, 따라서 당장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langue라는 實在體[17]를, 意識的·客觀的으로 把握하는 基準이 되기 때문이다. 機能主義言語學에 있어서의 機能이란, 그러므로, 具體的 事實을 言語實在體로 分類함에 있어서 그 分類原理가 되는 것이다. 具體的 事實들을 그 機能에 따라 言語實在體로 分類하는 이와 같은 意識的·客觀的 方法은, 言衆의 無意識的인 分類와 그 根本的인 취지가 같다는 데 그 有效性이 증명되는 것이며, 따라서 機能主義=形式主義〈formalism〉와 對立되는 實在主義〈realism〉[18]라는 公式이 正當化되는 것이다.

具體的 事實을 具體的 事實 그 自體로서 把握하지 않고, 具體的 事實의 部類〈classe〉로서, 즉 言語實在體로서 把握하는 根據는, 그리고 具體的 事實을 言語實在體로 分類하는 分類原理를 그 機能에서 찾는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本質的인 이유를 言語記號의 특성인 記號의 恣意性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記號의 恣意性이야 말로 言語記號로 하여

---

[10] Prieto가 의도하는 機能의 槪念에 接近해 가기 위해, Malinowski의 文化人類學에 있어서의 從來의 機能의 定義에 대한 異見을 例로 들었다.

[11] cf. Bronislaw Malinowski, *A scientific theory of culture. (the functional theory)* New York, p. 159

[12] Henning Spang-Hanssen, op. cit., p. 111.

[13] Saussure, op. cit., p. 112.

[14] A. Martinet, *A functional view of language*, Oxford, 1961, p. 3.

[15] Saussure, op. cit., p. 140.

[16] Ibid. p. 68, 257. pp. 251—2.

[17] Ibid. p. 153.

[18] realism과 formalism에 대해서는 Martinet, op. cit., pp. 1—38을 참조.

금 集團意識으로서의 社會的 事實[19]이되게 하는 決定的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만일에 言語記號를 구성하는 槪念과 聽覺映像 사이의 關係를 必然的인 것으로 假定한다면, 그 聽覺映像은 具體的인 소리무리의 聽覺映像이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具體的인 소리무리를 그 자체로서 把握하기만 하면 足할 것이다. 그러나 事實은 그와 反對로, 하나의 소리무리는 그것이 나타내야 할 바의 것과의 對應關係에 있어 다른 소리무리 보다도 더 適合하기 때문에 對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20] 傳達活動의 道具로서의 그 機能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의 소리무리는 그것이 屬하는 言語內의 다른 소리무리와의 關係에서 差異 있음을 要한다. 即 記號의 恣意性은 記號의 示差性과 相關關係에 있는 것이다[21]. 그러나 그 差異는 단순한 差異는 아니다. 傳達活動에서의 그 機能을 다하기 위한 差異인 것이다. 즉 소리무리는 그 自體가 機能을 負擔하는 것이 아니라, 그 差異가 그 機能의 直接的인 負擔者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機能이란 무엇일까. De Saussure 가 適切히 表現한 바와 같이, 一連의 소리는 그것이 觀念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限, 言語的인 것이 못되는 것이다[22]. 즉 그 機能이란 觀念을 뒷받침해 주는 機能인 것이다.

記號의 恣意性은 이와 같이 言語란 實質이 아니라 形式[23], 具體的事實이 아니라 言語實在體, 즉 同一集團意識이 知覺하는[24] 社會的 事實임을 說明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言語實在體는 傳達活動에서의 機能의 負擔者이다. 우리가 具體的 事實로서의 소리무리를 소리무리 그 自體로서 把握하지 않고 소리무리의 部類, 즉 言語實在體로 把握하는 것은, 그리고 그 具體的事實로서의 소리무리를 言語實在體로 分類하는 근거를 그 機能에다 두는 것은 바로 以上과 같은 言語記號 自體의 性格에 그 理由가 있는 것이다[25]. 機能主義=形式主義와 對立되는 實在主義라는 公式의 正當性은 機能主義가 바로 위와 같은 言語記號自體의 性格에 土臺를 두고 있음으로써인 것이다.

4) 言語記號, 엄밀히 말해서 言語記號素의 機能的 硏究의 오늘날까지의 實態를 살필 때, 그것은 主로 記號素의 資料的인 側面, 즉 signifiant 의 側面에 관해서였다. Troubetzkoy 의 *Principes*[26] 를 비롯한 소위 《프라그》音韻學이 곧 그것이다. 그 이전의 단계로 올라가면 소리(son)와 音韻(phonème)을 區別치 못한 音韻學 以前의 단계로 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

[19] 言語=社會的 事實이라는 Saussure 의 根本思想에 대한 考察은, cf. 拙稿, Saussure 言語學의 方法論硏究「언어학보」第一號, 1963.

[20] Saussure, op. cit., p. 163.

[21] Ibid. p. 163.

[22] Ibid. p. 144

[23] Ibid. p. 157, 169. 이것은 또한 社會的 事實의 特徵이기도 하다. cf. 拙稿 op. cit., pp. 29—30.

[24] Ibid. p. 140.

[25] 따라서 두個의 相異한 소리무리일지라도 그들이 同一한 觀念=signifié 를 나타내면 그 機能이 같으므로 同一한 言語實在體로 分類된다.

[26] N.S. Troubetzkoy, *Principes de phonologie*, Paris, 1957. 原版은 *Grundzüge der Phonologie*, Göttingen, 1962 가 있다. 本稿에서 引用되는 것은 佛譯版이다.

이지만, 하여튼《프라그》[27] 音韻學은 言語構造의 一般特性의 敎示者로서 君臨할 만큼 그 方法을 鍊磨해 왔음이 사실이다. 《프라그》音韻學의 方法上의 特徵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代置(commutation)라는 手續과 그에 따르는 對立(opposition)이라는 槪念에 있다. 즉 特定의 한 소리무리를 A로 나타내고 그 소리무리를 그가 지시하는 signifié에 連結시키는 關係를 R로 나타내면, 즉

A R X

또 하나의 소리무리 B가 소리무리 A와 같은 部類에 屬하느냐 아니냐는 B가 X와의 關係項으로서 A에 代置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B R X가 可能하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代置가 可能할 때, A,B, 두 소리무리는 하나의 部類를 이룩하며, 그들 소리무리는 그 部類의 變異〈variante〉이다. 만일 그것이 不可能할 때 A,B, 두 소리무리는 서로 다른 部類에 屬하며 對立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方法에 의해서 決定된 각각의 소리무리의 部類는 그 각각의 部類를 구성하는 모든 소리무리들이 가지고 있는《資質》의 總體라고 定義된다. 한 소리무리가 所屬하는 部類를 定義하는 바, 그 소리무리의 資質은 그 소리무리의《辨別的》資質이고, 그 밖의 資質은《辨別的이 아닌》資質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 signifié의 關係項으로서 代置되는 것은 소리무리이지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28]. 바꿔 말하면, 뭉뚱그러진 하나의 全體로서의 소리무리가 signifié와 對應하는 것이지, 그 소리무리를 이룩하는 소리가 signifié와 對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말할 것도 없이, 한 낱말이 다만 한개의 소리로 이루어지는 일도 없지 않지만, 一般的으로는, 낱말은 다수의 소리의 結合으로 이루어 짐을 原則으로 한다. 즉 意義를 나타내는 것은 一般的으로는 個個의 소리가 아니라, 多數의 소리의 結合體[29]라는 平凡한 事實을 想起함으로써 위의 事實은 理解되고도 남음이 있다. 소리무리가 뭉뚱그러진 하나의 全體로서 signifié와 對應한다는 것, 따라서 個個의 소리가 signifié와 對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의 signifié 에 對應하는 소리무리는, 똑같이 signifié에 對應하는 個個의 소리를 보태 합쳐서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소리는 소리무리와 마찬가지로 signifié에 對應되는 같은 資格의 所有者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리무리를 그에 對應하는 하나의 signifié의 소리무리가 되게끔하는 特徵을, 가지가지의 結合樣式을 통해서, 이룩해 주는 데 그 存在理由가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全體로서의 소리무리는 部分으로서의 소리와는 別個의 하나의 特種의 全體이며, 거꾸로 部分으로서의 소리는 獨立的인 存在가 아니라, 그들의 結

[27] A. Martinet, *La description phonologique avec application au parler franco-provencal d' Hauteville* (Savoie), Paris, 1956, pp. 14—5.
[28] Prieto, op. cit., p. 23. fn. 13.
[29] 有坂秀世, 音韻論, 東京, p. 116.

合을 通해서 全體로서의 소리무리를 特徵지어 주는 存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全體와 部分의 問題는 現代 言語學을 特徵짓는 構造主義를 낳게한 De Saussure 의 根本思想[30]이기도 하다.

위의 論理의 당연한 歸結로서, 한 소리무리의 資質들의 各各은 그 소리무리의 소리 하나 하나를 特徵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特定의 結合樣式 즉 結合法則을 통해서, 統一된 하나의 全體로서의 소리무리를 特徵지어 준다는 結論이 나온다. 즉 資質은 소리의 特性이 아니라 소리무리의 特性인 것이다[31].

資質이, 소리가 아니라 소리무리를 特徵지어 주는 것은, 資質의 特定의 結合을 통해서이므로, 資質을 소리무리의 特性으로 보는 觀點에서는 그 資質의 分布相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資質을 孤立된 소리를 特徵짓는 것으로 보는 한, 分布相, 곧 對照相〈l'aspect *contrastif*〉은 資質의 定義에서 說明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즉 국어 모음 〔i〕의 特性은《前舌》《高》,《平脣》[32]인데, 그 중 예컨데,《前舌》이란 資質은, 혀의 位置라는 觀點에서밖에《前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즉《前舌》이라는 資質 속에 이미 暗示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資質을 소리무리의 特性으로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소리무리를 特徵지어 주는 特性으로 보게 되면, 단지 資質만으로 定義해서는 不充分하다. 資質이 소리무리를 特徵짓는다는 것은 資質의 特定의 結合法則 곧 制約된 結合法則을 통해서 統一된 하나의 全體로서의 소리무리를 特徵지어 주는 것을 意味하기 때문에, 그 資質이 그 소리무리를 特徵지어 주는 데 있어서의 結合上의 制約도 說明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스페인어 〔míro〕에서, 〔i〕를 단지《前舌》이라고만 정의해서는 불충분하며,《(액슨트母音)前舌》이라고 하는 식으로.[33] 왜냐하면, 액슨트가 있는 母音으로서 다름 아닌《前舌》이라는 資質을 가지고 소리무리 〔míro〕를 特徵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資質의 說明에서 Prieto 는 ( )안의 것을 資質의 對照相(l'aspect contrastif), 그 나머지를 資質의 對立相(l'aspect oppositionnel)이라 부른다.

이와 같이 資質을 그 對立相만이 아니라 對照相까지도 考慮에 넣는 것은 資質을 소리의 特性으로가 아니라, 소리무리의 特性으로 보기 때문인데, Troubetzkoy 의 *Principes* 를 위시하여 음운학 전반에 걸쳐서, 그 對照相이 가리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Troubetzkoy 자신도 낱말은 音聲的 全體(tout phonique)이며, 하나의 影像(silhouette)이라고 指摘했음[34]에도 不拘하고, 그리고 그 자신 意義를 지니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소리무리라는 事實을 充分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不拘하고, 資質의 定義에서 그 對照相을 說明치 않은 것은, 그

[30] cf. 拙稿 op. cit., pp. 51—67. 現代言語學에 있어서의 構造의 槪念에 대해서는 cf. 金芳漢,「現代言語學에 있어서의 構造의 槪念」(서울大學校 論文集 人文社會科學) 1966, pp. 109—151.

[31] Prieto, op. cit., p. 78, 118.

[32] cf 許雄, 國語音韻學, 서울, 1965. pp. 194—5.

[33] cf Prieto, op. cit., p. 78.

[34] cf. Troubetzkoy, op. cit., p. 38.

의 重大한 모순으로 指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는 資質을 소리의 特性으로 보고 소리무리의 特性으로 보지 않았다는 結論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結論은 그가 소리무리를 그 이상 쪼갤 수 없는 도막〈segment〉(《unités phonologiques qui[…] ne se laissent pas analyser en unités phonologiques encore plus petites et successives》)[35]으로 쪼개고, 그런 후에야 비로소 그 도막을 자질로 分析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Troubetzkoy는, 資質을 소리의 特性으로 봄으로써, 마치 소리의 資質이 signifié와 對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對立의 項〈terme〉을 소리무리가 아니라 소리라고 생각하는 結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의 signifié에 對應하는 하나의 소리무리가 有意的인 소리의 總和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이러한 생각은, 全體는 孤立的으로 存在하는 部分의 總和가 아니고, 部分의 結合으로 이루어진, 部分과는 다른 特種의 全體이며, 部分은 全體 안에서의 相互紐帶 속에서만 存在한다는 말로 要約될 수 있는 De Saussure의 言語觀[36]에 背馳되는 자기 모순인 것이다[37]. 有坂秀世가 指摘한 바와 같이, 實際言語에 있어서 말의 뜻을 分化하지 못하는 音韻의 對立이 存在한다[38]는 事實은 Troubetzkoy의 이와 같은 모순을 잘 나타내 주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즉 signifié에 對應하는 것은 音韻(또는 소리)이 아니라, 音韻(또는 소리)의 結合體로서의 signifiant(또는 소리무리)이라는 사실을 端的으로 말해 주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Prieto가 말하는 音韻的 對立〈opposition phonématique〉과 音韻學的 對立〈opposition phonologique〉의 區別[39]의 必要性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音韻學的 對立이란 말할 것도 없이 實際的인 對立으로서, 한 소리무리를 주어진 한 signifié와의 關係項으로서 다른 한 소리무리로 代置할 수 없을 때, 그들 두 소리무리 사이에 存在하는 關係이며, 音韻的對立이란 한 言語의 音韻體系에 의하여 (音韻學的)對立을 이룰 可能性을 가진(그들이 音韻學的 對立을 이루건 안 이루건)對立을 말한다. 그리하여 音韻學的 對立과 音韻的 對立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關係가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모든 音韻學的 對立은 音韻體系에 따라 設定되기 때문에〈모든 音韻學的 對立은 音韻體系에 의하여 可能한 對立, 즉 音韻的 對立을 이루는 소리무리들 사이에 設定되는 對立이므로〉, 音韻學

---

[35] cf. ibid. p. 37, 39.
cf, Prieto, op. cit., p. 78.

[33] cf 拙稿 op. cit., p. 51 以下. 特히 Godel이 提示한 Saussure의 講義노트中, 다음 귀절은 그것을 잘代辯해 준다. ≪[…] 낱말이나 辭項으로 부터 始作해서 對系를 抽出해선 안된다. 그것은 辭項들이 미리 絕對的인 價値를 가진 것으로 믿는 것이 된다; 反對로, 體系로 부터, 連帶的 全體로 부터 出發하지 않으면 안된다. 後者(連帶的 全體)는, 보기 보다는 抽出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어떤 諸辭項으로 分析이 되는 것이다.≫ Godel, op. cit., p. 228.

[37] 왜냐하면 Troubetzkoy 自身은 De Saussure의 方法을 採用했기 때문이다. cf. Troubetzkoy, op. cit., p. 2. ff.

[38] cf. 有坂, op. cit., pp. 57—9, pp. 120—1. 東京方言에서는, 例컨데, /e/와 /i/의 對立이 낱말의 뜻을 分化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帝國」/teekokɯ/, /teikokɯ/,「改正」/kaisee/, /kaisei/, 등.

[39] Prieto, op. cit., pp. 26—32.

的 對立을 이루는 두 소리무리는 언제나 또한 音韻的 對立을 이룬다. 그러나, 그 逆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40], 참이 아니다. 즉 두 소리무리가 音韻的 對立을 이룰 수는 있으나, 音韻學的 對立은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例컨데,

A. 〔ʒə m asje.〕와 〔ʒə m aswa.〕
Je m'assieds *Je m'assois*

B. 〔yn pjɛr〕와 〔yn bjɛr〕 에서,
Une pierre *Une bière*

A,B, 에서 두 소리무리는 音韻的 對立을 이루지만 B 만이 音韻學的 對立을 이루고 A 는 音韻學的 對立을 이루지 않는다. 音韻學的 對立과 音韻的 對立에는 각각 變異〈variante〉가 있다. 즉 音韻學的 觀點에서의 變異란 한 소리무리가 한 signifié 와의 關係項으로서 다른 한 소리무리로 代置될 수 있을 때, 그 두 소리무리는 音韻學的 觀點에서 變異이며[41], 音韻的 觀點에서의 變異란 두 소리무리가 音韻學的 對立을 이루지 않을 뿐 아니라, 音韻的 對立도 이룰 수 없을 때, 그 두 소리무리는(音韻學的 觀點에서 變異일 뿐 아니라)音韻的 觀點에서도 또한 언제나 變異이다. 例컨데,

〔il e Riʃ.〕와 〔il e riʃ.〕.

따라서, 音韻的 觀點에서 變異인 두 소리무리는 언제나 音韻學的 觀點에서도 또한 變異이지만, 그 逆은 참이 아닌 것이다. 즉 音韻學的으로는 變異가 될 수 있는 두 소리무리가 音韻的 觀點에서는 變異가 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데,

A. 〔ʒə m asje.〕와 〔ʒə m aswa.〕

B. 〔il e Riʃ.〕와 〔il e riʃ.〕에서,

소리무리 A,B, 는 둘다 音韻學的 觀點에서 보아 變異이지만, 그러나, B 만이 音韻的 觀點에서도 變異이고, A 는 反對로 音韻的 對立을 이루는 것이다.

Troubetzkoy 를 위시한 《프라그》音韻學은, langue 의 表現〈expression〉의 面의 硏究에 있어서 代置〈commutation〉라는 方法과, 그에 따르는 對立의 槪念을 提示한 反面에, 위에 말한 音韻的 對立과 音韻學的 對立을 明確히 區分하지 못하고, 音韻的 對立과 그 變異에 專念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音韻學的 對立과 그 變異를 硏究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던 것이다. 여기에 Troubetzkoy 를 비롯한 《프라그》音韻學의 첫째의 弱點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Troubetzkoy 및 《프라그》 音韻學이 지닌 두번째의, 그리고 첫번째의 것에 못지 않게 重要한, 方法上의 弱點은, 소리무리의 知的 意義〈signification intellectuelle〉[42] 곧 signifié 를 이미 아는 것으로 보고 들어간다는 점이다. 그러나 signifié 라는 이 言語實在體를 客觀的으로 定義하는 理論이 없이는, 音韻學에 의하여 소리와 소리무리의 硏究에서 얻어진 客觀性

[40] cf. 註〔38〕.
[41] cf. 바로위의 例의 A.
[42] cf. Troubetzkoy, op. cit., p. 36 ff.

은 確固한 것이 못된 채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43]. 이와 같은 Troubetzkoy 및 《프라그》 音韻學이 內包하고 있는 方法上의 두번째의 弱點——소리무리의 signifié 를 의미 아는 것으로 치고 들어가는——에 곁들여, 우리는 여기서 잠시 소리무리의 意味〈meaning〉를 전혀 度外視하고 소리무리를 이룩하는 소리의 分布〈distribution〉만을 考慮하는 미국의 Harris 를 中心으로 하는 一群의 學派——記述主義 또는 分布主義라고 불리우는[44]——에 關해서 생각해 볼 必要를 느낀다. 우선 소리무리의 意味를 전혀 度外視한다는 점에 대해서 미국의 言語學者 Robert A. Hall 의 말을 빌리기로 하자.

> 意味라는 要因은 하나의 소리 또는 하나의 形態가 機能的인 意義를 갖느냐 안갖느냐를 決定하는 데 決定的인 基準으로서 언제나 留意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言語學者들은 意味를 전혀 考慮함이 없이도 言語의 構造를 硏究하고 公式化하는 것이 理論上 可能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可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한 努力과 에너지의 浪費를 要할 것이다. 言語란, 그 言語社會 안에서 그 有用性——그 存在理由——를 意味에 두고 있는 것이다. 人間이란 앵무새가 아니기 때문에, 言語를 통해서 意味를 傳達할 수가 없다면, 따라서 그것을 使用함으로써 아무런 利得이 없다면 그렇게도 複雜한 發音習慣의 體系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데 時間을 浪費할 사람은 人間처놓고 아무도 없을 것이다[45].

미국의 Harris 식 記述主義, 分布主義의 根源이 未知의 言語의 硏究로부터 出發한 미국 言語學 自體의 性格에 結付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던 소리무리의 意味를 無視하는 態度로는 communication 의 道具로서의 言語에 관한 깊은 洞察과 깊은 理論은 期待될 수 없을 것임은 明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意味를 度外視하고 소리무리에만 專念한 결과 소리무리를 이룩하는 소리의 分布相을 徹底히 把握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Troubetzkoy 의 音韻學의 方法上의 첫번째 弱點과는 對照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이상과 같은 Troubetzkoy 및 《프라그》音韻學의 方法上의 弱點을 커버하는 理論 즉 signifié 의 客觀的인 規定을 위한 理論은, Troubetzkoy 自身에 의해서 그 存在의 可能性이 暗示되어 온 以來[46] 아직껏 아무에 의해서도 그 理論的 土臺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여기에 Prieto 의 signifié 의 機能理論의 一般言語學史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重要性이 있다 할 것이다.

6) 그러면 signifié 의 機能的 硏究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記號素의 또 하나의 側面

[43] cf. Prieto, op. cit., pp. 24—25.
[44] cf. 金芳漢, op. cit., p. 119. fn. 24.
[45] Robert. A. Hall Jr. *Introductory linguistics*, New York, 1964. p. 228.
[46] cf. Troubetzkoy, op. cit., pp. 2—3.

인 signifiant의 機能的 研究가 무엇인가라는 質問과 똑같은 性格의 質問에 屬한다. 즉 speaker가 實際 parole 行爲에서 두 個의 相異한 具體的 事實로서의 소리무리를 같은 것이라고 느끼고 똑같이 具體的 事實인 두個의 相異한 뜻을 같은 것이라고 느끼는 무의식적인 分類를 意識的·客觀的으로 分類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具體的 事實인 소리무리와 뜻으로부터 出發하여 그들을 集團意識으로서의 社會的 事實인 言語實在體로 分類하는 데 있어 그 基準을 機能에다 두고서 그와 같이 分類하는 方法을 말한다.

二十世紀 言語學의 物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集團意識, 곧 社會的 事實인 langue 즉 言語實在體에 到達하기 위하여 具體的 事實로부터 出發한다는 自己 覺醒에 있다고 할 수 있다[47]. 이것은 具體的 事實과 言語實在體와를 區分 조차하지 않았던 前世紀의 言語學과 對立된다는 점에서의 特徵[48]인 것이다. 즉 前世紀의 言語學에 있어서는, 예컨데, 具體的 事實로서의 소리와 言語實在體로서의 音韻의 區別조차도 못하고 다 같이 소리〈son〉라는 術語를 使用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事實이다. 즉 그들 前世紀의 言語學者에게 있어서는 言語實在體는 곧 具體的 事實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思考方式은 speaker의 無意識的인 分類活動에 대한 깊은 洞察의 缺如로 말미암은 것으로 解釋되는 것이다[49]. 즉 例컨데 국어의 「모기」의 〔g〕와 「기차」의 〔k〕는 국어에서 같은 音韻 /ㄱ/으로 묶인다. 즉 聲帶振動이 있고 없음은 그 두 소리를 서로 다른 部類〈classe〉로 分化시키는 特徵이 못된다. 그런데, 그들 特徵(有聲 無聲의)이 〔g〕소리나 〔k〕소리를 서로 다른 部類로 分化시키지 못한다는 事實로 말미암아 speaker는 그들 特徵에 대해서 더 이상 注意를 하지 않게 되는 習性이 붙는다. 그리고 이 習性은 매우 굳어져서 그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기에까지 이른다. 그리하여 speaker가 「모기」의 〔g〕와 「기차」의 〔k〕가 같다고 느낄 때, 그는 자기가 相異한 두 具體的 事實을, 그들의 差異를 無視함으로써 같은 部類〈classe〉에 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同一視하는 것은 그들이 同一한 具體的 事實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되는 것이다. 즉 「모기」의 「ㄱ」소리(〔g〕)와 「기차」의 「ㄱ」소리(〔k〕)는 같은 「ㄱ」소리(/ㄱ/)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speaker의 無意識的 分類에 대한 깊은 洞察의 缺如가 前世紀의 言語學者로 하여금 言語實在體를 具體的 事實로 混同하게 한 것이라고 解釋되는 것이다. 이러한 具體的 事實과 言語實在體의 混同에서 脫皮하여 兩者를 區別하고, 言語實在體를 把握하기 위하여 具體的 事實로부터 出發한다는 데 二十世紀 言語學을 그 前世紀 言語學으로부터 區別케 하는 特徵이 존재하는 것이다.

具體的 事實로부터 出發하여 그것을 言語實在體로 分類하는 데 있어서 그 基準을 機能

---

[47] cf. Prieto, op. cit., p. 11. 또, cf. 許雄, 言語學槪論, 서울, 1963. p. 377.

[48] 따라서, Saussure 言語學에 對한 論難은 될 수 없다. 그는 langue와 parole을 區分했을 뿐만이 아니라, langue를 parole의 道具요, parole은 langue의 實現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49] cf. Prieto, op. cit., p. 12.

에다 두는 機能主義는, 곧 實在主義〈realism〉로서, 機能을 度外視하고 오직 形態에만 專念하는 形式主義〈formelism〉와 對立된다. 즉 機能主義에 있어서의 機能은, 諸事實을 方法의 要求에다 從屬시키려는 言語理論家의 如何한 試圖에도 頑強히 抵抗할 價値의 尺度를 言語學者에게 提供해 주는 것이다[50].

具體的 事實을 言語實在體로 分類하는 基準이 되는 機能이란,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構造內에서의 內部的 機能이 아니라, 傳達活動에서의 機能이다. 從來의, 言語學에 있어서의 機能의 定義가, Buyssens이 指摘한 바와 같이 內部的인 機能, 즉 靜的인 機能의 定義로 끝났음에 反하여, Prieto의 機能의 定義는 傳達活動에서의, 즉 動的인 面에서 把握된 機能인 것이다. 이 點에 있어서 Prieto의 機能의 定義는 Buyssens의 定義와 같다고 할 수 있다[51]. 事實 言語란 傳達의 道具로서 存在하는 것이므로, 言語의 機能이란 당연히 傳達活動에서 把握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必要조차 없을 것이다. 靜的인, 構造體內에서의 機能이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傳達活動이란, 發話者가, 자기와 聽取者間에, 特定의 信號를 通해서, 一定한 社會的 關係 즉 뜻을 設定하는 活動을 말한다[52]. 그런데 傳達活動에서 使用되는 信號〈signal〉는 소리무리이다. 그리하여 Prieto는 實際의 傳達活動, 즉 parole 行爲가 目的으로 삼는 뜻의 設定에 대해서 소리무리가 하는 貢獻, 즉 機能을 基準으로 하여 具體的 事實인 소리무리와 뜻을, 言語實在體인 signifiant과 signifié로 各各 分類하는 것이다.

뜻의 設定에 대해서 소리무리가 하는 貢獻이란 具體的으로 무엇인가. Prieto는 뜻의 設定에 貢獻하는 言語的 要因으로서의 소리무리 以外에 言語外的〈extra-linguistique〉要因으로서의 狀況〈circonstance〉[53]이 있음을 實際 parole 行爲에서 立證함으로써, 뜻의 設定에 대해서 言語的 要因으로서의 소리무리가 하는 役割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해준다.

뜻이 設定된다는 것은 發話者가 意圖하는 뜻이 實際로 聽取者에게 傳達이 된다는 것이므로, 뜻의 設定에 대해서 소리무리와 狀況이 각각 어떤 貢獻을 하는가를 알려면 뜻이 設定되기 위한 必要充分條件이 무엇인가를 알면 된다. 그 條件이란,

첫째, 말 보내는 사람이 設定코자 하는 뜻이 그가 發音한 소리무리가 認定하는 뜻들 가운데의 하나로 나타나야 하고,

둘째, 그 뜻이 그 소리무리가 똑 같이 認定하는 다른 모든 뜻들 보다도 狀況에 의해서 가장 優待를 받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條件을 滿足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뜻은 設定되지 않고 그 parole 行爲는 失敗로 끝나는 것이다. 즉, 말 보내는 사람(E)가 設定코

---

[50] cf. Martinet, *functional view of language*,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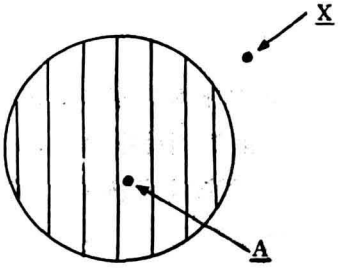
[51] cf. 本稿 p. 26 fn. 12

[52] 이점에 있어서도 Prieto와 Buyssens은 一致한다. cf. Henning Spang-Hanssen, op. cit., pp. 111—2.

[53] 狀況이란 parole 行爲가 始作하는 순간, parole 行爲와는 別途로, 聽取者가 알고 있는 諸事實을 말한다. cf. Prieto, op. cit., p. 37.

자 하는 뜻을 X, 그가 發音한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뜻들을 ◍, 狀況에 의해서 가장 優待받는 뜻을 A,로, 그리고 狀況에 의해서 똑 같이 優待를 받고 있거나 다른 뜻들보다 더 優待를 받고 있는 뜻이 둘인 경우에는 A와 A′로 표시하면, 1) E가 설정코자 하는 뜻이 그가 發音한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지 않는 뜻일 때, 바꿔 말해서 B가 設定코자 하는 뜻이 그가 發音한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뜻들 가운데 안 나타날 때, 그 parole 行爲는 失敗로 끝나는 것이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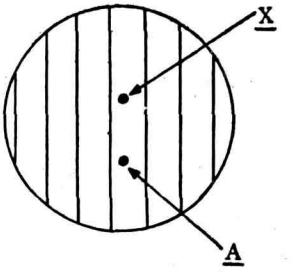
54



또, 2) E가 設定코자 하는 뜻이 그가 發音한 소리무리가 認定하는 뜻들 가운데 나타나지만, 狀況이 그 뜻을 優待하지 않고 그 소리무리에 의해서 똑 같이 認定되는 다른 뜻을 優待할 때도 그 parole 行爲는 失敗로 끝난다.

즉,

55



또. 3) E가 設定코자 하는 뜻이 그가 發音한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뜻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타나지만, 狀況은 그 뜻만이 아니라, 그 소리무리에 의해서 똑 같이 認定되는 다른 뜻도 또한 優待하고 있을 때, 그 parole 行爲 역시 失敗로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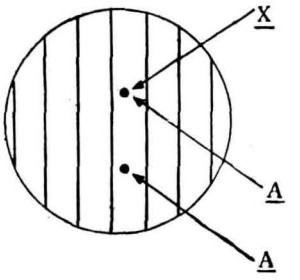
즉,

---

54 이것은 말을 誤發했거나, 그 말을 모르는 경우에 일어나는 現象이다. 가령 R에게 그의 노우트를 要求키 위해 E가 〔done mwa l kRejõ〕을 發音했을 경우가 이런 경우다. 즉 X는 認定된 뜻들 가운데 안나타난다. 따라서 X≒A 다. (parole 行爲는 잘못 理解되어 失敗로 끝난다. 왜냐하면 R이 소리무리(A)에 歸屬시키는 뜻은 E가 設定코자 하는 뜻(X)이 아니기 때문이다).

55 이것은 發話者(E)가 狀況을 잘못 判斷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現狀이다. 가령, 聽取者(R)가 자기의 赤크레용을 쓰고 있는데 E는 R이 쓰고 있는 크레용이 黑크레용인줄 알고 그 黑크레용을 要求키 위해, 소리무리 〔done mwa l kRejõ.〕을 發音한 경우가 이에 屬한다. 즉 X는 認定된 뜻들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러나 X≒A 다. (parole 行爲는 잘못 理解되어 失敗한다. 왜냐하면 R이 소리무리(A)에 歸屬시키는 뜻은 E가 設定코자 하는 뜻(X)이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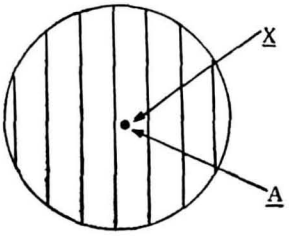
56



그러므로,

4) E가 設定코자 하는 뜻이 그가 發音한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뜻들 가운데의 하나로서 나타날 뿐 아니라 바로 그 뜻을, 그 소리무리에 의해서 똑 같이 認定되는 다른 뜻들 보다도 더 狀況이 優待하고 있는 경우에만 뜻은 設定되고, 따라서 parole 行爲는 成功하는 것이다.

57



따라서, 뜻을 設定하는데 있어서의 즉, parole 行爲에 있어서의 소리무리의 役割과 狀況의 役割은 明確히 區分된다. 즉 뜻의 設定에 대한 소리무리의 役割이란, 말 보내는 사람이 設定코자 하는 뜻이 그가 發音한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뜻들 가운데 하나임을[57], 다시 말하면, 그 뜻이 그 소리무리에 의해서 인정되는 뜻들이 이룩하는 뜻의 部類〈classe〉 곧 signifié에 屬함을 말받는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있으며,

뜻의 設定에 대한 狀況의 役割이란, 소리무리에 의해서 指示된 뜻의 部類〈classe〉 곧 signifié를 構成하는 뜻들 가운데, 어느 것이 말 보내는 사람이 設定코자 한 뜻인가를 말받는 사람에게 明確히 指示해 주는데 있다. 따라서 뜻의 設定에 대한 소리무리의 貢獻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말받는 사람에게 signifié를 指示해주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게된다.

여기서 重要視해야 할 槪念은 認定〈admis〉이라는 槪念이다. 이 認定이란 槪念은 排斥

---

[56] 이것도 또한 發話者(E)가 狀況을 잘못 判斷했을 경우로서, 예컨데, R의 두個의 크레용이 테이블 위에 있는데, E는 R이 그의 黑크레용을 使用하고 있는 줄 알고, 그 黑크레용을 R에게 要求키 위해 소리무리 〔done mwa l kRejõ〕를 發音하는 경우가 이에 屬한다. 즉 X는 認定된 뜻들 가운데 나타난다. 그리고 X=A다. 그러나 A′가 있다. (parole 行爲는 不明確性으로 말미암아 失敗한다. 왜냐하면 R은 A와 A′中 어느 뜻을 소리무리에 歸屬 시켜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57] 하나의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뜻들이란 그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지 않는 뜻들(=배척되는 뜻들), 따라서 다른 소리무리에 의해서 인정되는 뜻들과는 다른, 諸資質의 特定總體=signifié 인 것이다. cf.本稿 p.37

〈exclus〉이란 槪念과 對立되는 槪念으로서, 하나의 特定言語에서 하나의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뜻들은 그 소리무리에 의해서 排斥되는, 따라서 다른 하나의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뜻들과는 다른 어떤 資質을 나타낸다는 意味에서의 槪念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한 言語를 이룩하는 뜻의 總體는 그 言語의 적어도 한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뜻들의 總體 즉 意味의 場〈champ noétique〉으로서, 하나의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뜻들은, 그와 같은 意味의 場에 屬하면서 그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지 않는, 즉 排斥되는, 따라서 다른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뜻들과는 다른 어떤 特定의 資質을 나타낸다[58]는 意味에서의 槪念인 것이다.

따라서 한 소리무리의 signifié는 그 소리무리의 關係 項〈terme〉으로서의 뜻의 代置〈commutation〉[59]에 의하여 設定될 수 있는 것이다. 즉 A는 特定의 한 소리무리를, R은 한 parole 行爲에서의 소리무리와 뜻을 連結하는 關係라 하면, 즉

A R …

의 關係 項(…)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뜻들은 소리무리 A의 signifié를 이룩하여, 나타날 수 없는 뜻들은 소리무리 A의 signifié를 이루지 않고 다른 소리무리의 signifié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關係項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뜻들은 소리무리 A의 signifié의 變異〈variante〉들이며, 그들은 그 關係項으로서 나타날 수 없는 뜻들과 《對立》(oppos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야, 뜻의 設定에 대한 소리무리의 貢獻이란,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된 뜻들이 이룩하는 뜻의 部類, 곧 signifié를 말 받는 사람에게 指示해 주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개의 相異한 소리무리가 各各 同一한 뜻들을 認定하면, 그것은 곧 그들 相異한 두 소리무리가 同一한 signifié를 가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두 소리무리의 뜻의 設定에 대한 貢獻은 같다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 두개의 相異한 소리무리는 그 機能의 同一性 때문에 하나의 部類, 곧 signifiant으로 分類되며, 逆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뜻은, 만일 그들에 對應하는 各各의 소리무리가 同一한 뜻들을 認定하면, 그들 各各의 소리무리도 同一한 signifié를 가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 相異한 두 뜻의 設定에 대한 各各의 소리무리의 貢獻은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 相異한 두 뜻은 하나의 部類 곧 하나의 signifié로 分類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具體的 事實로서의 소리무리와 뜻을 言語實在體로서의 signifiant과 signifié로 分類하는 分類의 基準은, 뜻의 設定에 대한 소리무리의 貢獻〈la contribution de la phonie à l'établissement du sens〉[60]에서 찾을 수 있

[58] cf. Saussure, op. cit., p. 167. ≪〔…〕 言語制度의 特性은, 바로 이들 두個의 秩序의 (思想과 音의)差異 사이에 並行을 維持하는 것이다≫. 萬一 意味의 場을 달리하면 비록 뜻으로서는 同一하더라도 그 signifié는 달라진다. cf. ibid. p. 160—1의 英語의 sheep 와 佛語의 mouton의 例.

[59] 이것은 소리무리의 代置(cf. 本稿 p.28)와 對照를 이룬다.

[60] cf. Prieto, op. cit., p. 21.

는 것이다. 즉 소리무리를, 뜻의 設定에 대한 그의 貢獻이란 觀點에서, 뜻을, 그의 設定에 대한 소리무리의 貢獻이란 觀點에서 硏究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Prieto의 機能的 硏究方法으로서, 이중 後者의 硏究, 곧, 뜻을 그의 設定에 대한 소리무리의 貢獻이란 觀點에서 硏究하는 것이, signifié의 機能的 硏究에 屬하며, 이것을 Prieto는 意韻(素)學〈noologie〉[61]이라 定義한다.

7) 以上과 같은 Prieto의 소리무리와 뜻의 機能的 硏究方法은 De Saussure의 다음과 같은 公式 (《言語實在體는 signifiant과 signifié의 聯合에 의해서만 存在하며》, 《우리가 그들 要素중의 하나만을 취하자 마자 그것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一連의 소리는 그것이 觀念의 支柱가 되지 못하는 限, 言語的이 아니다》 그리고 또 ≪《집》, 《흰(白)》, 《보다(見)》와 같은 槪念은〔…〕 聽覺映像과의 聯合에 의해서만 言語的인 것이 된다》)[62]을 實際 傳達活動, 實際 parole 行爲에서 解釋한 것[63]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Harris식 소위 分布主義者〈distributionalist〉들의 形態의 重視와, De Saussure의 根本精神을 따르는 機能主義者들의 形態의 重要視 사이에는 質的인 差異가 있음을 指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分布主義者들은 意味를 度外視하기 때문에 形態만을 重要視하며, 機能主義者들은 意味를 考慮에 넣기 때문에 形態를 重要視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機能主義者들이 分布主義者 못지 않게 形態를 重要視하는 것은, 意味가 形態를 通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意味의 硏究도 形態에 依支해서 硏究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投機的인 것이 된다는 점에서, 形態를 重要視하는 것이다. 여기에 分布主義 또는 記述主義의 形態의 重要視와, 機能主義의 形態의 重要視 사이에 存在하는 根本的인 差異가 있는 것이다.

8)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뜻들의 部類〈classe〉라고 定義된 signifié는 그 構成 멤버로서의 뜻을 위주로, 그리고 그 뜻의 資質[64]을 위주로, 다음과 같은 두 signifié사이의

---

[61] cf.ibid. p. 34.

[62] Saussure, op. cit., p. 144. 筆者 强調. 이러한 公式은 또한 ibid. p. 190, pp. 191—2, 에도 나타난다.

[63] cf. Prieto, op. cit., p. 63.

[64] 주어진 하나의 뜻〈sens〉이 주어진 하나의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된다는 것과 諸資質의 特定總體를 나타낸다는 것과는 絕對的으로 並行하는 두가지 事實이다. (cf. Prieto, op. cit., p. 60) 그리고, 그들 諸資質의 特定의 總體가 곧 signifié인 것이다. 例컨대, 《命令》《(對象) 크레용》, 《(對象)單數》, 들은 소리무리〔done mwa l kRejo〕의 signfié를 구성하는 諸資質들로서, 이들의 總體가 그 signifié인 것이다. 이들, signifié를 구성하는, 資質은 辨別的 資質이고, 그 이외의 資質은 辨別的이 아닌 資質이다. 諸資質은 다시 그들間의 關係에 의해서 1) 暗示되는(또는 暗示하는)資質, 2) 交替的資質〈traits substitutifs〉, 3) 排他的 資質〈traits exclusifs〉로 나뉜다. 1)은, 例컨대, 佛語의 《男性》이라는 資質과 《크레용》이라는 資質을 말한다. 즉 《크레용》은 나타내나 《男性》은 안 나타내는 뜻은 佛語에 없기 때문에 《크레용》은 暗示하는 資質이고 《男性》은 暗示되는 資質이다. 2)는 佛語의 소리무리〔il a aporte l so〕의 signifié를 구성하는 資質 《seau》(물통)과 《sceau》(가위)가 그 例이다. 그러므로 Prieto에게 있

關係가 設定된다. 우선 크게 나누어 1) 同一한 關係의 signifié 와 2) 相異한 關係의 signifié 로 나누고, 相異한 關係의 signifié 는 이를 다시 細分하여 1) 制限 또는 含有關係〈rapport de restriction ou d'inclusion〉의 signifié, 2) 蠶食 또는 相交關係〈rapport d'empiètement ou d'intersection〉의 signifié, 3) 對立되는 signifié 로 나눈다.[64]

위와 같은 言語記號素〈Enonce, sème linguistigue〉의 signifié 의 關係中, 制限(또는 含有)關係 및 蠶食(또는 相交)關係의 存在는, 오직 signifié 의 對立關係를 유일한 可能性으로 삼고 있는 他記號體系의 記號素로부터 言語記號素를 區別케 하는 特徵이 되는 것이다. 同時에, 實際傳達活動에 있어서, 말 보내는 사람은, 同一한 뜻을 設定키 위하여, 制限關係 또는 蠶食關係의 signifié 를 가진 여러 言語記號素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選擇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同一한 뜻을 設定함에 있어 選擇의 對象이 되는 言語記號素들은 制限關係(또는 蠶食關係)의 signifié 를 가진 것들이며, 制限關係에 서는 두 signifié 中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資質을 더 許容하고 있으므로[65], 制限關係에 서는 signifié 를 가진 言語記號素들의 signifié 들을 그들을 構成하는 資質을 위주로 相互比較함은 言語記號素의 signifié 의 組織(organisation)의 記述이 되는 同時에 한 言語記號素의 signifié 를 構成하는 獨立的인 資質의 抽出을 可能케 한다. 즉 주어진 한 記號素의 signifié 를 構成하는 두 資質을 a,b,라 할 때,

1) a 는 許容하나 b 는 許容치않는 덜 制限된 signifié 를 가진 言語記號素가 있고, 반대로, b 는 許容하나 a 는 許容치 않는 덜 制限된 signifié 를 가진 言語記號素가 있을 때, a 와 b 間에 存在하는 關係는 《a| b 關係》 (a 와 b 의 관계)[66],

2) a 는 許容하나 b 는 許容치 않는 덜 劃限된 sgnifié 를 가진 言語記號素는 있으나, b 는 許容하나 a 는 許容치 않는 덜 制限된 signifié 를 가진 言語記號素는 없을 때, a 와 b 間에 存在하는 관계는 《$\frac{a}{b}$關係》 (b 위에 a 관계)[67],

---

어서는 同音異義語(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름으로써 두個의 單語로 본다는 意味에서의)란 있을 수 없다. 오직 한 單語로서, 하나의 소리무리가 交替的資質을 갖는, 하나의 單語일 뿐이다. 그 資質中 어느 것을 指示하느냐는 소리무리의 役割이 아니라, 狀況의 所管事이기 때문이다. 交替的資質은《seau》U《sceau》로 표시한다. 3)은 가령 佛語의 意味의 場에서의《命令》과《報告》라는 두 資質이 그 例이다. 즉 하나의 뜻이《命令》이면,《報告》가 아니고, 그 逆도 참이기 때문이다.

[64] cf. 圖表 1.

[65] cf. 圖表 1.

[66] *Elle regarde mon cahier* 에서 資質 a. (possesseur de l'objet) singulier 와 資質 b. (objet) cahier 의 關係 (즉 *Elle regarde le mien* (a 는 許容, b 는 許容치 않음)과 *Elle regarde le cahier*(b는 許容, a 는 許容않음)가 있다). 또 資質 a. (objet)cahier 와 資質 b. regarder 의 關係(즉, *Elle le regarde* (b 는 許容 a 는 아님), *Mon cahier*(a 는 許容, b 는 不가 있다.) 또 a. regarder 와 b. possesseur de l'bjet singulier 의 關係(즉 *Elle regarde le cahier*(a 는 許容, b 는 不)와 *Mon cahier*(b 는 許容, a 는 不)가 있다)는 a|b 關係다. 따라서 regarder | (poss. de l'objet)sing.|(objet)cahier.

[67] *Elle regarde mon cahier* 에서, a. (objet)singulier 와 b. (objet) cahier 의 關係(즉 *Elle le regarde* (a 는 許容, b 는 不)는 있으나, b 는 許容하나 a 는 許容치 않는 signifié 를 가진 記號素는 佛語에 없다), 또 a. (objet) singulier 와 b. (poss. de l'objet) singulier 의 關係(즉 *Elle regarde le cahier* (a 는 許容하나 b 는 許容치 않음)는 있으나, b 는 許容하나 a 는 許容치 않는 signifie 를 가진 記號素는 佛語에 없다) $\frac{a}{b}$ 關係다. 그러므로, $\frac{\text{(objet)singulier}}{\text{(poss. de l'objet)sing. | (objet)cahier}}$ 그런데, a. (objet)

3) a는 許容하나 b는 許容치 않고, b는 許容하나 a는 許容치 않는, 덜 制限된 signifié를 가진 言語記號素가 없을 때, 즉 a를 許容하면 반드시 b도 許容하고, 그 逆도 참인 signifié를 가진 言語記號素 밖에 없을 때, a,b, 間에 存在하는 關係는 《ab 關係》[68],

이와 같이 설정된 a와 b의 關係에서 劃(— 또는 |)으로 區劃된 資質이 곧 獨立的인 資質인 意素(音韻)〈noème〉라고 定義된다[69]. 이 意素는 다시 傳達活動에서 辨別化(pertinisation)의 單位로서 그 機能이 定義된다[70]. 즉 E가 R와 佛語로 《Françoise가 E의 노트를 본다고 하는 E의 R에 대한 報告》라는 뜻을 설정코져 할 때, E는 그 뜻의 설정에 모두 이바지하는 다음과 같은 言語記號素들 〈*Elle regarde mon cahier, Elle regarde le mien, Elle le regarde, On regarde le cahier, Mon cahier,* 등등〉 中의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가령 E가 그 뜻을 설정키 위하여 *Elle regarde le cahier* 라는 言語記號素를 選擇했다고 하면 그것은 곧, E가 그 뜻을, 選擇된 그 言語記號素의 signifié의 變異〈variante〉로 삼음을 뜻한다. (E가 그 뜻을 설정키 위하여 위의 言語記號素中 어떤 다른 言語記號素를 選擇할 경우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즉 그 뜻은 위의 모든 言語記號素의 變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뜻이 한 言語記號素의 signifié의 變異가 되려면, 그 signifié를 구성하는 資質들, 곧 辨別的 資質들을 나타냄을 要하며, 言語記號素의 signifié를 구성하는 辨別的 資質들은 言語記號素에 따라 相異하다. 그러므로 E가 그 뜻을 설정키 위하여 위의 言語記號素中의 하나를 選擇[71]한다는 것은, 그 뜻을 選擇된 言語記號素의 signifié를 구성하는 資質, 곧 辨別的 資質들로 化하게 하는 것, 곧 辨別化〈pertiniser〉하는 것을 뜻한다. 意素는 傳達活動에서 이와 같은 辨別化의 單位로서 機能하는 機能體로서 定義되는 것이다. 辨別化란, 말 보내는 사람편에서의 parole行爲의 出發點을 이루는 具體的 事實인 뜻을 特定한 言語記號素의 signifié의 變異로 分類하는 言語的 處理이다. 즉,

뜻→signifié→signifiant→소리무리라는 順序의 말보내는 사람 편의 parole行爲에서, 뜻→signifié의 部分에서의, 즉 辨別化에 있어서의 單位가 곧 意素가 되는 것이다.

Prieto는 이와 같은 意素의 機能的 定義를, 同時에 實現되는 辨別的 諸資質의 總

singulier와 b. regarder의 關係는 a|b 關係(즉, *Mon cahier* (a는 許容, b는 許容않음)와 *Elle regarde* (b는 許容, a는 許容않음)가 있다)이므로, regarder$\left|\frac{\text{(objet)singulier}}{\text{(poss. de l'objet)sing | (objet)cahier.}}\right.$

[68] *Elle regarde mon cahier*의 signifié에서, a. (poss. de l'objet) singulier와 b (poss. de l'objet) 1re personne의 關係(즉 a,b中 하나는 許容하나 다른 하나는 許容치 않는, 덜 制限된 signifié를 가진 記號素는 佛語에 하나도 없음) 는 ab 關係다. 따라서 〔66〕, 〔67〕을 綜合하면 :

$$\text{regarder}\left|\begin{array}{c}\text{(objet)singulier}\\ \hline \begin{array}{l}\text{(poss. de l'objet) sing}\\ \text{(poss. de l'objet)1re p.}\end{array}\ \Big|\ \text{(objet)cahier}\end{array}\right. \text{가 된다.}$$

[69] cf. Prieto, op. cit., pp. 90—3.

[70] cf. ibid. p. 98.

[71] 選擇이란 곧 parole行爲를 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R. Godel이 다음과 같이 適切히 表現했다. 〔…〕 selection of signs with regard to a particular situation requires a variable amount of creative activity. cf. Robert Godel, *F. de Saussure's theory of language,* (Thomas A. Sebeok ed., Trends in linguistics, theoretical foundations, The Hague, 1966), p. 492.

體[72]로서의 音韻의 機能的 定義에도 適用한다. Trouebtzkoy 自身이 斷言했듯, 音韻이 機能的으로 定義되어야함[73]에도 不拘하고, 音韻學은 音韻을 구성하는 辨別的 資質들을 決定함에 그쳤을 뿐, 辨別的 資質의 總體 그 自體, 즉 音韻 그 自體의 機能에는 言及이 없어 온 것이다. 또, 音韻의 機能을 辨別的이라고 하는 것은, 辨別的 諸資質의 機能을 定義한 것은 될지언정 音韻의 機能을 定義한 것은 되지 않는다. 즉 辨別的 機能이란 音韻을 特徵짓는 것이 아니라, 辨別的 諸資質을 非辨別的 諸資質로 부터 區分함으로써, 辨別的 諸資質을 特徵짓는 것이기 때문이다[74].

그리하여 意素를 抽出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무리의 辨別的 資質間의 關係를 설정함으로써 音韻을 規定하고, 그 音韻을 말 받는 사람 편이 소리무리를 辨別的 資質로 同一化〈identification〉한다는 觀點, 즉 同一化의 單位로서 그 機能을 定義하는 것이다. 소리무리는 時間이라는 次元에서 展開되는 線條性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리무리의 諸資質間의 關係는 우선 時間이라는 次元에서, 그리고 소리무리의 資質에는 길이가 相異한 資質이 있으므로 길이라는 次元에서 設定된다. 즉 길이가 같은 資質들[75]을 時間이란 次元에서 1) 同時的인 關係 즉 ab 關係, 2) 繼起的인 關係 즉 a|b 關係, 그리고, 3) 길이가 相異한 資質, 즉 分割的 資質과 韻律的 資質이 나타나는 경우 즉 두 分割的 資質에 韻律的 資質이 얹히는 경우[76]에서 볼 수 있는 관계 즉 $\frac{a}{b}$ 관계로 나누고, 이러한 關係로 부터 音韻이 定義된다. 즉 劃 (|또는 —)으로 區劃된 資質이 音韻인 것이다. 이와 같이 定義된 音韻은 傳達活動이라는 觀點에서, 즉 말 받는 사람側의, 소리무리의 辨別的 資質로의 同一化라는 觀點에서, 그 同一化의 單位[77]로서 그 機能이 定義되는 것이다. Prieto 의 音韻의 이와 같은 機能的 定義는 音韻을 認識의 單位로 보는 A.W. de Groot, A. Sotavalta 의 音韻의 定義와 흡사하다 할 것이다[78]. 이와 같은 音韻의 機能的 定義는 말 받는 사람 편에 있어서의 parole 行爲의 순서인,

소리무리→「signifiant」→「signifié」→뜻에서 「소리무리」→「signifiant」의 部分에서, 즉 말받는 사람이 소리무리를 「signifiant」으로 分類하는 活動에서 規定되는 定義인 것이다.

意素와 音韻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發話者와 聽取者에게 있어서 各各 parole 行爲의 始發點을 이루는 作業에서 비슷한 役割을 遂行하는 役割體로서 定義된 것이다. Prieto 는 發

[72] cf. A. Martinet *La description*. p. 40

[73] cf. Troubetzkoy op. cit., p. 43. 및 Prieto op. cit., p. 99 fn. 18.

[74] Ibid. p. 99. fn. 18.

[75] 즉 分割的音素를 이루는 資質의 相互間에, 그리고 韻律的音素를 이루는 資質의 相互間에는 **같은 길이**의 關係가 있다.

[76] 繼起的인 두 分割的資質 X,Y 에 韻律的資質 Z가 얹힐 경우 Z가 認識될때 X도 同時에 認識되나 Y는 아직 인식되지 않고,(즉 Z는 Y와는 別途로 認識되고), Z가 Y와 同時에 認識될 때는, X는 認識되지 않는다(즉 Z는 X와는 別途로 認識된다.) 즉, Z는 X,Y,의 各者와 別途로 認識이 된다. 그러나 그 逆은 참이 아니다. 즉, X,Y의 各者가 認識될 때는 반드시 Z가 認識되는 것이다.

[77] cf. Prieto. op. cit., p. 102.

[78] cf. Troubetzkoy, op. cit. p. 46. 및 Prieto op. cit., p. 104. fn. 22.

話者와 聽取者 사이의 parole 行爲의 순행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圖表[79]를 通해서 意素와 音韻의 機能을 一括해서 說明한다. 즉,

[80]

9) parole 行爲에서의 辨別化의 單位로서 그 機能이 定義된 意素는, 同一한 意素脈에서 相互代置가 可能한 意素들의 總體로서의 paradigme의 成員으로서 存在하며, 그 成員은 paradigme의 實現〈représentant〉[81]이다. 그리고 有限數의 成員으로 이룩되는 paradigme은 文法的 paradigme이며, 그 成員은 文法的 意素가 된다. 反對로, 無限數의 成員으로 이룩되는 paradigme은 語彙的 paradigme이며, 그 成員은 語彙的 意素가 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paradigme이라는 術語는, De Saussure의 聯合群[82]에 代置된 現代的인 術語이지만, 그리고 그러한 術語上의 代置가 心理主義에서 完全히 脫皮하지 못한 De Saussure의 缺點을 커버하기 위한 動機에서 나왔다고 解釋되지만[83], 그러나 그 槪念에 있어서는 Prieto의 paradigme이나 De Saussure의 聯合群 사이에 根本的인 差異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聯合群이란 하나의 單位[84]이며, 그 聯合群을 구성하는 辭項들은 parole 行爲에서 實現되는 辭項[85]으로서, 그 辭項이 語彙的인 것일 때에는 그 辭項의 數는 無限[86]이며, 그 辭項이 文法的인 것〈例컨데 屈折語尾와 같은 것〉일때는 有限數[86]의 辭項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De Saussure는 明白히 指摘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Prieto의 paradigme에 關한 限, De Saussure의 聯合群의 槪念과, 差異가 없고, 그 根本槪念上의 一致를 우리는 確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paradigme을 구성하는 成員, 즉 意素에 關해서 Prieto에 의하여 指摘된 特記할 事實은, 中和(또는 原)意素(archinoème)의 槪念이다. 이 中和(原)意素의 槪念이 각별한 注目을 끌게되는 것은, 그것이 Troubetzkoy 이후의 音韻學 全般에 있어서 普遍化되었다고 볼 수 있

---

[79] cf. ibid. p. 100.

[80] 이것은 De Saussure의 parole의 循行의 圖式과 對照的이다. 즉 그것의 細分化라 할만 하다. cf. Saussure, op. cit., p. 28.

[81] 이 實現이란, 입을 通한 實現이 아니라, 精神的 活動으로서의 選擇이라고 解釋된다. 이點에 대해서는 cf. 註〔71〕의 Godel의 見解 및 cf. Saussure, op. cit. p. 17. ff.

[82] cf. 拙稿 .op. cit., pp. 38—9 및 Godel, *Les sources manuscrites...* p. 208.

[83] cf. 金芳漢, op. cit., p. 142 ff.

[84] cf. Godel, op. cit., p. 208.

[85] cf. Saussure, op. cit., pp. 176—80.

[86] cf. ibid. pp. 174—5.

는 中和(原)音素[87]의 槪念에 修正을 加한다는 點에서일 것이다. 中和(原)意素란, 한 paradigme을 구성하는 둘 또는 그 以上의 意素들(물론 對立되는)에 共通된 資質들로만 構成된 意素로서, 共通된 資質이란, 資質의 對立相뿐이 아니라, 그 對照相까지도 아울러 考慮에 넣고서 생각한, 資質의 共通性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A paradigme의 둘 또는 그 以上의 相互對立되는 意素들에 共通된 資質(對立相에 있어서나 對照相에 있어서)들로 구성된 唯一한 意素가, B paradigme의 成員中의 하나로서 存在할 때, A paradigme의 그 둘 또는 그 以上의 意素들의 對立은 B paradigme에서 無效化, 즉 《中和》되는 것이다. 이 中和現象을 두 paradigme을 構成하는 成員間의 對應關係에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A. paradigme의 둘 또는 그 以上의 意素가 그들 意素에 共通된 資質들과 全的으로 同一한 資質들, 곧, 그들 意素에 共通된 資質들과 對立相에 있어서나, 對照相에 있어서 同一한 資質들로 이루어진, 唯一한 意素인 B. paradigme의 成員과, 對應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對應關係는, 그와는 다른 對應關係, 즉, 한 paradigme의 둘 또는 그 以上의 意素가, 그들 意素에 共通된 資質들과 對立相에 있어서만 同一하고 그 對照相에 있어서는 다른 資質들로 構成된 唯一한 意素(다른 하나의 paradigme의 成員인)와 對應하는 對應關係와는 區別된다. 즉 兩對應關係는 한 paradigme의 둘 또는 그 以上의 成員과 다른 하나의 paradigme의 하나의 成員 사이에 對應이 問題가 된다는 點에서만 類似點이 있을 뿐인 것이다. Prieto는 前者의 對應關係를 固有한 의미의 中和〈neutralisation〉, 後者의 對應關係를 下位分化〈sous-différenciation〉라하여 兩者를 區分한다. 이 下位分化는 두 paradigme의 各各의 成員 사이에, 對立相에 있어서만 同一한 資質들로 구성된 意素의 一對一 對應이 있는 《비슷한 paradigme》(paradigmes similaires)의 한 種類인 것이다. 즉 下位分化도 《비슷한 paradigme》에 屬하되, 단, 두 paradigme의 各各의 成員間에 對立相에 있어서만 同一한(따라서 對照相에 있어서는 相異한) 資質들로 構成된 意素의 一對一 對應이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두 paradigme中 한 paradigme의 一部의 成員(즉 둘 또는 그 以上의 意素)이, 그들 成員(意素)에 共通된 資質들과 對立相에 있어서만 同一한 資質들로 構成된 唯一한 意素인, 다른 하나의 paradigme의 成員(즉, 意素)과, 對應되는 點에서 《비슷한》 paradigme의 다른 하나의 類型에 屬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意素學에서 區別하는 固有한 意味에서의 中和와 그리고 下位分化의 槪念은, Troubetzkoy의 *Principes* 및 그것을 踏襲하는 音韻學全般에 걸쳐서 지금까지 믿어져 온 中化의 槪念에 重大한 修正을 加하게 되는 것이다. 즉 Troubetzkoy는 *Principes*에서, Prieto의 意素學에서 嚴密히 區分되는 全혀 다른 두 現象, 즉 固有한 意味에서의 中和와 下位分化에 各各 對應되는 音韻學的 現象을, 다 같이 中和라는 同一한 術語를 使用함으로

[87] 勿論 中和(原)意素는, 'spoken utterance에서 抽出되는 音韻體系를 構造化할 때'에 있어서, 存在하는 槪念이다. cf. 金芳漢, 프라그 學派의 言語理論(語學硏究(第Ⅲ卷 第2號), 서울, 1967), p. 7.

써, 마치 相異한 要因에 의해서 惹起되는 同一한 現象인 것 처럼 본 것이다. 즉 Troubetzkoy는 같은 中和라는 이름 밑에 中和를 1) 音素脈에 의해서 規定되는 中和《neutralisation conditionnée par le contexte》및 2) 構造에 의해서 規定되는 中和《neutralisation conditionnée par la structure》[88]로 나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音素脈에 의해서 규정되는 中和란, 音韻論的 對立의 中和가 特定의 諸音韻의 곁〈voisinage〉에서 일어나는 것[88]을 말한다. 例컨데, 國語에서, 다른 子音音韻 뒤에서는 對立되는 /ㅓ/ : /ㅕ/와 같은 音韻의 對立 (/ㅂㅓㄹ/〈罰〉과 /ㅂㅕㄹ/〈別〉의 對立 따위)이, /ㅈ/, /ㅊ/ 따위의 齒子音音韻뒤에서는 無效化하는 것(/ㅈ/, /ㅊ/다음에서는 /ㅓ/, /ㅕ/, /ㅏ/, /ㅑ/, 등의 對立이 없다)은 그 例에 屬한다[89]. 構造에 의해 規定되는 中化란, 音韻論的 對立의 中和가 곁의 諸音韻에는 相關없이, 오직, 낱말 안에서의 特定의 諸位置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例컨데, 국어에서 語頭의 /ㄱ/, /ㄲ/, /ㅋ/,의 對立이, 語末位置에서, 無效化하는 따위는 이에 屬하는 例[90]이다.

以上이 Troubetzkoy 및 그를 踏襲하는 音韻學 全般에 있어서 지켜져 온 中和의 槪念이다. 즉 두 現象을 다같이 中和라는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同一한 現象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資質의 對立相만을 考慮하고 그 對照相을 度外視하는 Troubetzkoy의 缺點에 基因하는 것으로서, 資質의 對照相을 介入시켜서 생각하자마자, 위의 1)과 2)의 現象은, Prieto가 意素學에서 區別하는 固有한 의미의 中和와 下位分化에 各各 對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1)의 現象에 屬하는 國語의 例에서, /ㅂㅓㄹ/(罰)과 /ㅂㅕㄹ/(別)의 /ㅂ/ 다음에 나타나는 音韻 /ㅓ/와 /ㅕ/는 同一한 paradigme에 屬하며, 各各 다음과 같은 資質[91]들로 이루어 진다.

(子音뒷母音)後舌	(子音뒷母音)後舌
(子音뒷母音)中開	(子音뒷母音)中開
(子音뒷母音)平脣	(子音뒷母音)平脣
(子音뒷母音)非蓋口	(子音뒷母音)口蓋

그런데, signifiant /ㅊㅣㄹ/(鐵)에 나타나는 音韻 /ㅣ/를 구성하는 資質들 :

(子音뒷母音)後舌

(子音뒷母音)中開

(子音뒷母音)平脣[92] 은, 音韻 /ㅓ/와 /ㅕ/에 共通된 資質들과 對照相에 있어서나 對立相에 있어서 모두 같다. 그러므로 이것은 意素學에 있어서의 固有한 中化

---

[88] cf. Troubetzkoy, op. cit., p. 247.

[89] cf. 許雄, 國語音韻學 p. 352. 示範的 효과를 위해서 本稿에서는 /ㅑ/, /ㅕ/, 따위를 하나의 音韻으로 취급하였다. 독자의 양해를 바란다.

[90] cf. ibid. p. 84.

[91] cf. ibid. p. 195.

[92] /ㅓ/는 그 實現은 〔ㅓ〕이지만, 그 位置에서 〔ㅕ〕와의 對立은 不可能하므로, 《非口蓋》는 /ㅓ/의 資質에 드러오지 못한다.

에 對應되는, 音韻學에 있어서의 固有한 中化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음, 2)에 屬하는 國語의 例에서, signifiant /ㄱㅏㄱ/(角)의 初頭音韻 /ㄱ/은 다음과 같은 資質[93]들로 구성된다.

(母音앞子音)後舌

(母音앞子音)停止

(母音앞子音)軟

이 音韻이 實現하는 paradigme 에는 例컨데 다음과 같은 資質들로 構成된 音韻 /ㄲ/[93]이 나타난다.

(母音앞子音)後舌

(母音앞子音)停止

(母音앞子音)硬

그런데 同一 signifiant 의 끝에 나타나는 音韻 /ㄱ/은 다음과 같은 資質들로 構成된다:

(母音 다음 子音)後舌

(母音 다음 子母)停止

그러므로 /ㄱ/에 의해서 實現되는 paradigme 의 /ㄱ/과 /ㄲ/ 音韻은, 그들 音韻에 共通된 資質들과 그 對立相에 있어서만 同一한 資質들로 구성된 音韻 /ㄱ/(즉 /ㄱ/에 의해서 實現되는 paradigme 의 成員인)과 對應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意素學에 있어서의 下位分化에 對應되는, 音韻學에 있어서의 下位分化인 것이다.[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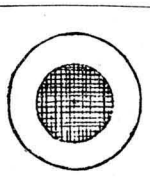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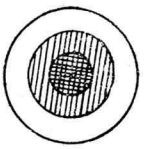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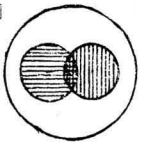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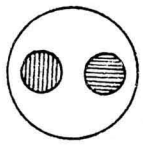
10) Prieto 의, signifié 의 機能理論에 대한 槪觀은, 이로써 끝맺음에 이르렀다.

De Saussure 이후, 主로 言語記號의 資料的 側面으로서의 signifiant 의 연구에 傾注되어 온 一般言語學은, 이제 Prieto 에 의하여 그 對部가 補完된 셈이다. 그러나 Prieto 의 signifié 의 機能理論이 던져 주는 問題點은, 단순한 그 補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우리는 言語學에 있어서의 機能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具體的으로 反省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構造體內에서의 部分의 役割이라고만 定義하지 않고, 生生한 傳達活動에서 機能을 把握한다는 點에 從來의 機能의 把握과는 對照되는 具體性을 발견케 되는 것이다. 둘째로, signifié 의 把握에 있어 音聲形態를 支柱로 삼는다는 點이다. 이것은 signifié 를 考慮에 두지 않는 一群의 記述主義者가 音聲形態를 중요시 하는 것과는 對照的인 點이라 할 수 있다. 세째로는 言語記號를 記號一般의 테두리 속에서 考察하여 그 組織上의 特徵을 들어내고, 言語記號의 基本單位를 言語記號素 즉 énoncé 로 잡는다는 點이다. 이것은 言語를 一般記號學的 觀點에서 研究할 것을 提唱한 De Saussure 의 原理의 具體化라 할 것

[93] cf. 許雄 op. cit., p. 194.
[94] cf. 圖表 2.

이다. 마지막으로, De Saussure의 構造觀, 즉 全體觀과 部分觀의 充實한 反映의 결과로 Troubetzkoy의 音韻學에 根本的인 修正을 加했다는 點이다. 누구보다도 깊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現代的으로 De Saussure의 一般言語學을 理解하고 解析함으로써, 前人未踏의 境地로 남아 있던 signifié의 理論의 터전은 이와 같이 해서 Prieto에 의해서 最初로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個別的인 言語硏究의 集積이 아닌,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抽象理論이 아닌, 人間의 言語一般을 一般記號學의 테두리 안에서 機能的으로 把握하는 一般言語學의 獨自的인 存在理由는, Prieto의 signifié의 機能理論을 통하여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圖表 1> * s—é=signifié

關係의 大別	關係의 細分	關係規定基準	定義	例		
同一한 關係	同一한 「씨니피에」	뜻	A R…의 관계항으로서 나타날수 있는 모든 뜻들이 B R…의 관계항으로서도나타날 수 있고, 그 逆도참일 때, A,B의 「씨니피에」를 말함.	〔done mwa l kRejõ.〕 R…(1) 과 〔done mwa l krejõ〕R…(2) 의 관계 항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뜻들이 이룩하는 signifié.		그림에서 밖의 圓은 意味의 場. 안의 圓에서 水平線이 그어진 圓은 (1)의 관계項으로서나타나는 뜻들을, 수직선의 圓은 (2)의 관계項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뜻을 나타낸다. 兩者가 같으므로 두 圓은 一致한다.
		資質	A,B,의 「씨니피에」가 同一한 資質들을 許容할 때, A,B의 「씨니피에」를 말함.	〔done mwa l kRejõ〕(*Donnez-moi le crayon*)(1)과 〔done mwa l kRejõ〕(*Donnez-moi le crayon*) (2)의 signifié		(1)의 s-é가 許容하는 資質과 (2)의 s-é가 許容하는 資質은 같다. 즉 《命令》,《(對象)크레용》, 등등.
相異한 關係	制限關係의 「씨니피에」	뜻	A가 인정하는 뜻들을 모두 B가 인정하나 B는 A가 인정치않는 뜻을 더 인정할 때, A,B,의 「씨니피에」를 말함.	〔done mwa l kRejõ nwaR.〕 R…(1)과 〔done mwa l kRejõ.〕 R…(2)의 관계항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뜻들이 이룩하는 signifié.		(1)과 (2)의 關係項으로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뜻은 《E가 자기에게 R의 黑크레용을 달라고 하는 E의 R에의 命令》이라는 뜻이있으나 (2)의 關係項으로서는 나타나지만 (1)의 관계 項으로서는 나타나지 않는 뜻 《E가 자기에게 R의 赤크레용을 달라고 하는 E의 R에의 命令》이 있다. 그림에서 水平線의 圓은 (1)의 關係項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뜻들을, 수직선의 원은 (2)의 관계항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뜻들을 나타냄
		資質	B의 s-é가 許容하는 모든 資質들을 A의 s-é가 許容하나, A의 s-é도 B의 s-é가 許容치 않는 資質들도 許容할 때, A,B,의 s-é를 말함.	〔done mwa l kRejõ nwaR.〕 (*Donnez-moi le crayon noir*) (1)과 〔done mwa lkRejõ.〕(*Donnez-moi le crayon*)(2)의 signifié.		(2)의 s-é를 구성하는 資質들은 (1)의 s-é에 모두 나타나나, (1)의 s-é는 (2)의 s-é가 許容치 않는 《(對象)黑》이란 資質을 더 許容코 있다. (1)의 s-é는 (2)의 s-é보다 덜 制限된 項(含有되는 項)이고 (2)의 s-é는 (1)의 s-é보다 덜 制限된 項(含有하는項)이다.
	蠶食(또는 相交)關係의 「씨니피에」	뜻	A,B,가 같은 뜻들을 공통으로 인정하되, 각각 相對方이 배척하는 뜻들을 또 인정할때, A,B의 「씨니피에」를 말함.	〔done mwa l kRejõ,〕 R…(1) 과 〔done mwa l nwaR.〕 R…(2)의 관계항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뜻들이 이룩하는 signifié.		《E가 자기에게 黑크레용을 달라는 R에의 命令》은 (1) (2)의 關係項으로서 다 나타나나, 《E가 자기에게 赤크레용을 달라는 R에의 命令》은 (1)의 關係項으로는 나타나나 (2)의관계항으로는 안난다고 《E가 자기에게 黑책을 달라는 R에의 命令》은 (2)의 관계項으로는 나타나나 (1)의 관계項으로는 안나타남. 水平의 圓은 (1)의 관계항으로 나타나는 뜻들을. 수직의 圓은 (2)의 관계項으로 나타나는 뜻들을 各各 나타낸다.
		資質	A,B,의 「씨니피에」가 相對方이 許容치 않는 資質들을 許容하되, A의 「씨니피에」가 許容하는 資質들 中의 어느것도 B의 「씨니피에」가 許容하는 資質들과 배타적이 아닐때, A,B,의 「씨니피에」를 말함.	〔done mwa l kRejõ.〕 (*Donnez-moi le crayon*) (1) 과 〔done mwa l nwaR.〕 (*Donnez-moi le noir*) (2)의 signifié.		(1)과 (2)의 s-é는 서로 相對方이 許容치 않는 資質을 各各 許容코 있다. 즉, 《(對象)크레용》, 《(對象)黑》. 그러나 이 두 資質은 서로 배타적인 資質이 아니다.
	對立되는 「씨니피에」	뜻	A,B中 어느 하나에 의해 인정되는 여하한 뜻도, 다른 하나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때, A,B,의「씨니피에」를 말함.	〔done mwa l kRejõ.〕 R…(1) 과 〔done mwa l kaje.〕 R…(2) 의 관계항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뜻들이 이룩하는 signifié.		(1)의 관계項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여하한 뜻도 (2)의 關係項으로서 나타날 수 없고 그 逆도 마찬가지다. 두 圓은 各各 (1)과 (2)의 關係項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뜻들을 나타낸다.
		資質	A,B,의 「씨니피에」의 각각이 相對方이 許容하는 「씨니피에」와는 서로 排他的인 資質들을 許容하고 있을 때, A,B의 「씨니피에」를 말함.	〔done mwa l kRejõ.〕 (*Donnez-moi le crayon*) (1) 과, 〔done mwa l kaje.〕 (*Donnez-moi le cahier*) (2)의 signifié.		(1)의 s-é와 (2)의 s-é가 許容하는 資質은 各各 《(對象)크레용》과 《(對象)노트》인데, 이들 두 資質은 서로 배타적이다.

對應이 있을때 두 P.는 〈비하다〉고 함.

(suj.)déterminé (suj.)féminin (suj.)3me pers.	parler présent	(compl. ind.)déterminé (compl. ind.)masculin (compl. ind.)3me. pers.
(suj.)maître		(compl. ind.)étudiant

에서, 意素(compl. ind.)étudiant 에 의해서 實現되는 P.의 成員이 對應한다.

(suj.)recteur——(compl. ind.)recteur 등등. 등등

P.의 各各의 成員間에 위와은 一對一의 對應이 없고 한의 둘 또는 그 以上의 意素에와〈비슷한〉P.에서 唯一한 意가 對應할 때, 그 後者의 P.는 그 前者의 P.에 대하여 하의《下位分化》가 있다고 말함.

Elle le regarde 의 signifié, information

(suj.)déterminé (suj.)féminin (suj.)3me pers. A	oui regarder présent	(obj.)singulier (obj.)déterminé (obj.)masculin (obj.)3me pers. B 에서

意素 B에 의해서 實現되는 P.에는 그 成員으로서,
意素 : (obj.)singulier (obj.)déterminé와 (obj.)masculin (obj.)3me pers. 意素 : (obj.)pluriel (obj.)déterminé (obj.)masculin (obj.)3me pers. 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 두 意素에 對하여 이들 두 意素가 共有하고 있는 資質들과 그 對立相에 있어서 同一한 資質들로 구성된 唯一한 意素 (다른 하나의 P.의 成員인)
(suj.)déterminé
(suj.)masculin 가 對應한다
(suj.)3me pers.

P.의 둘 또는 그 以上의 意가 그들 意素에 共通된 資質과 全的으로 同一한 資質들, 그들 意素에 共通된 資質들 對立相에 있어서나 對照相 있어서 同一한 資質들로 이이 진 唯一한 意素와 다른 나의 P.에서 對應함. 한 P. 둘 또는 그 以上의 意素는다 하나의 P.에서混同되어, 그 意素의 對立이 無効化 즉, 化된다.

Elle le regarde 의 signifié, information

(suj.)déterminé (suj.)féminin (suj.)3me pers.	oui regarder présent	(obj.)singulier (obj.)déterminé (obj.)masculin A (obj.)3me pers.

에서, 意素 A가 實現하는 P의 또 하나의 成員은,
B (obj.)singulier (obj.)déterminé 이다. (obj.)féminin (obj.)3me pers.

그런데, *Elle regardele cahier* 의 signifié, information

(suj.)déterminé (suj.)féminin (suj.)3me pers.	oui regarder présent	(obj.)singulier (obj.)déterminé C (obj.)3me pers. (obj.)cahier

에서, C意素는 A,B 두 意素에 共通된 資質로만 구성됨. 그러므로, 意素 A,B는 意素 C가 實現하는 P에서 混同되어 A,B의 對立이 中化됨.

例

의種類	構資成質	對立의	種類	成員의	構造

Elle regarde mon cahier 의 signifié 에서,
意素 : ((poss. de l'objet) singulier / (poss. de l'objet)1re. personne), 右와 같은 相關을 形成한다.
에 의해 實現되는 P.의 모든 成員들은,

(poss. de l'objet) sing —— (poss. de l'objet) pluriel
(poss. de l'objet) 1re. pers. —— (poss. de l'objet) 1re pers.
(poss. de l'objet) sing. —— (poss. de l'objet) pluriel
(poss. de l'objet) 3me pers. —— (poss. de l'objet) 2me. pers.
(poss. de l'objet) sing. —— (poss. de l'objet) pluriel
(poss. de l'objet) 3me pers. —— (poss. de l'objet) 3me pers.

수직 欄의 各各을 構成하는 《數》에 의해 特徵지어지고 《人稱》에 의해 對立된다.
構成하는 意素들은 同一한 특징지어 지고 그들 相互間 對立이 있다.

文法的意素	文法的資質	文法的對立	相關				
			語彙的P	同一序列			
				regarder présent	prendre présent	emporter présent	acheter présent etc.
				regarder passé non répété	prendre passé non répété	emporter passé non répété	acheter passé non répété etc.
語	語文法	語	相序	regarder passé répété	grendre passé répété	emporter passé répété	acheter passé répété etc.

수직 欄의 의소들은 序列을 이루고 수평 欄의 의소들은 系列을 이룬다 同一序列의 意素들은 文法的 對立을 이루고 相異한 序列 (즉 同一系列)의 意素들은 語彙的 對立을 이룬다.